

한국과 캐나다,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으로 산업·자원 협력 확대

- 캐 장관급 인사 면담, 잠수함 수주 지원과 산업·자원 협력 강화 논의 -
- 조선, R&D 등 분야 한-캐 간 MOU 2건 체결, 산업협력 가속화 기대 -

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.5(화)부터 5.6(수)까지(캐 현지시간 기준)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캐 산업부 장관 및 에너지·천연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.

김정관 장관은 5.5(화) 오후 멜라니 졸리(Mélanie Joly)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-캐 기업간 협력 MOU 체결 등 잠수함 수주 관련한 양국 산업협력 진전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, 수소 등 여타 분야 산업협력 강화 및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를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.

이어 김 장관은 5.6(수) 오전 팀 호지슨(Tim Hodgson) 에너지·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·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한-캐 핵심광물 워킹그룹(WG)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이 외에도 김 장관은 5.6(수) 오전 하산 유세프(Hassan Yussuff) 상원의원(前 상원 국방위원장)을 만나 잠수함 사업 관련 한-캐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플라비오 볼페(Flavio Volpe)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(APMA) 회장과 만나 최근 국내 기업과 MOU*를 체결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, 잠수함 사업 관련 APMA 차원의 한국 지지 선언에 사의를 표하였다.

* 군용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MOU (한화에어로스페이스-한화오션-APMA, 4.29)

한편, 이날 산업부 장관 임석 하 한-캐 쇄빙선 국제공동연구, 산업기술협력 관련 총 2건의 MOU*가 체결되며 조선, R&D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.

- * (1) 한-캐 쇄빙선 국제공동연구개발(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- 캐 메모리얼대학교)
- (2) 한-캐 산업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협력(한 산업기술평가원 - 캐 Prompt)

김 장관은 “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단순한 국방조달 사업을 넘어, 양국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끝까지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구진경 (044-203-56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강지민 (044-203-5653) |
| | 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협력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선훈 (044-203-41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강진석 (044-203-4154) |
| |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임채욱 (044-203-43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채기천 (044-203-4327) |

